

보도일시 (인터넷) 2023. 5. 30.(화) 11:00,  
(지면) 2023. 5. 31.(수) 조간

배포 2023. 5. 30.(화) 06:00

## 고수온·적조, 사전대비부터 복구까지 분야별 전략 세워 대응

- 2023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어업인 피해 최소화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대비부터 복구지원까지 분야별 전략\*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 ①사전대비, ②감시(예찰) 강화, ③(민관합동) 집중대응, ④복구지원, ⑤기반강화(제도개선)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고수온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고수온 발생시기 : ('20년) 8.14. → ('21년) 7.15. → ('22년) 7.6.

해양수산부는 먼저 고수온·적조에 대한 사전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 유도, 대응장비 지원, 입식신고소 운영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적조감시단 및 적조신고 앱 운영, 수온관측망 확대(180개소),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춘다.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반 및 민·관 적조방제선단 등 운영을 통해 총력방제 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시설복구비 지원, 어류폐사체 처리 지원 등을 통해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고수온 내성 품종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의 대응장비 가동 준비,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어촌양식정책관<br>어촌양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서진희 (044-200-5610) |
|       |                    | 담당자 | 사무관 | 한성민 (044-200-5614) |
|       |                    |     | 사무관 | 서경란 (044-200-5616) |
|       |                    |     | 사무관 | 황미혜 (044-200-5622) |

## □ 고수온·적조 발생 전망

2023년 우리나라 여름철 수온은 평년(30년) 대비 0.5~1℃ 내외로 높으며, 평년대비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고수온) 7월 초순 예비주의보, 7월 초 중순 주의보(수온 28℃), 7월 중순 경보 예상  
\* ('22년) 7.4(관심) → 7.6(주의보) → 7.8(경보) → 9.7(해제, 64일 지속)
- (적조) 7월 중순 예비주의보, 7월 하순 주의보(유해적조생물 100개체 이상/ml) 이후 확산 예상  
\* ('22년) 8.26.(주의보) → 9.30.(해제, 36일 지속/ 최대밀도 8,500개체/ml)

## □ 분야별 세부 대책

### ① [사전 대비] 예방중심적 대응체계 확립

- (대응장비 지원) 양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한 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냉각기, 차광막, 황토 등 지원  
\*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사업비(40억원), 적조예방사업비(38억원) / 10개 지자체
- (적정출하 유도) 14개 주요 해면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출하시기 안내 (SNS, 온라인, 우편 등)
- (입식 신고 등) 양식 재해보험 가입\* 및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등 입식 신고 홍보 강화 \* '22년도 피해어가 재해보험 가입률 : 37%

- 해양수산재해포럼 : 4.26~27 / 부산 벡스코 / 해수부, 수과원, 지자체, 어업인 등 120명
- 재해대응 실무자 교육 : 4.27 / 부산 벡스코 / 지자체 공무원 40명
- 어업인 현장간담회 : 4.18~6.2 / 전남경남제주충청강원경북 / 해수부, 수과원, 지자체 어업인 등 300명
- 관계기관 대책협의 : 6.15(잠정) / 여수 / 해수부, 행안부, 기재부, 해경청, 수과원, 지자체 등 20명

### ② [감시 강화] 예찰·예보 인프라 확충

- (예찰강화) 시민 적조감시단\* 운영, 항공 예찰 강화(해경) 등 예찰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시민 감시단(50명) 및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588명)
- (정보제공) 수과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예찰정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외국인 작업자들을 위한 외국어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수과원 홈페이지 연동(www.nifs.go.kr/risa),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 및 배합사료 공급방법외국어매뉴얼
- (수온예측)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수온예측시스템 개발('21~'25, 19억)  
\* ('21) 140개 → ('22) 160개 → ('23) 180개(전남 등 지자체 관측망 추가 연계)

### ③ [집중 대응] 민·관 합동 현장 대응

- (대응반운영)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부터 우리부 상황반(반장 수산정책실장) 및 현장 지자체·민간 합동 대응반을 운영, 선제적 대응추진
  - \* 위기경보 「심각」 발령시 책임자를 장관으로 격상, 일일상황점검으로 현장상황 모니터링
- (총력방제) 민·관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여 사전 합동 모의훈련 실시(6월중, 전남·경남), 고수온·적조 「주의」 단계부터 대응장비 등 총동원
  - \* 외해(대형황토살포기, 해경방제정), 중간(중형황토살포기, 군수지원정), 연안(어선, 자율방제단)
  - \*\* 대응장비(액화산소공급기, 해상저층해수펌프, 산소발생기 등), 황토확보량(154천톤 확보)
- (민간참여) 적조 방제를 위해 민간 어업인 주도 자율방제선단\* 운영
  - \* 자율방제선단 구성·운영(전남 2개소 40척, 경남 15개소 371척)

### ④ [복구 지원]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 (직접지원) 입식비\*, 시설복구비 지급 등을 통해 피해어가 경영재개 지원
  - \* 수산생물 입식비: 보조 50% (5천만원 한도), 융자 30%, 자부담 20%
- (간접지원) 생계지원비, 융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추가 지원 \* 어가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 (신속복구) 양식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류폐사체 처리 지원
  - \* 매몰지 확보(18개소, 283m<sup>2</sup>) / 처리공장(액화비료) 5개소(전남1, 경북2, 경남1, 제주1)

### ⑤ [기반 강화] 재해취약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보급

- (사육환경 개선) 표준사육기준\*(총 16종)을 현장 적용토록 하여 밀집 사육 관행 개선 및 피해예방 도모
  - \* 동 기준 준수를 재해보험 가입 조건에 포함,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도 동 기준으로 지원
- (품종개발 및 전환) 고수온 내성품종(넙치, 전복) 및 기후변화 대응품종(바리류 등) 개발, 영양소 요구량 구명(바리류), 육종품종(참돔, 조피볼락) 개발 등
  - \* 국립수산물과학원 / '21~'25 / 총 65억원, 연도별 13억원